

서울환경영화제 5th

21th 춘천마임축제

지구와 인간의 지속적인 충돌 그리고 대화.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지나야 할 생명의 존엄성은 이미 훼손된 지 오래다. 문명은 불교가 지구적인 불평등·압제·착취 그리고 환경 파괴의 현실구조를 설득력 있게 다루고 체계적인 제도적 변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이다. 결국 실용주의적 가치체

계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환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싼 모든 것, 자연과 사람과 모든 생명을 하나로 잇는 커다란 고리와 같다. 그런 점에서 생태계와 실용주의의 가치체계에 내재된 인간 혹은 기업의 욕망에 관한 복잡한 상호 관계를 불교적 관점으로 표현한 문화행사가 눈길을 끈다.

##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펼쳐라! 즐겨라! 느껴라!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CGV 삼암'에서 펼쳐지는 녹색축제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재단이 주최한 '생생한 지구'를 위한 영화선언이다.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미래의 환경을 가꾸기 위한 대안과 실천을 모색한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며 후원기업의 녹색 마케팅 예코비즈니스(echo-business)를 경험할 수 있다.

자원은 부족하고 기후는 혹독하지만, 천년 이상 번영을 누려온 문화의 고장이다. 그러던 이들에게 세계화와 소비위주 문화가 들어온다. 감독 헬레나 호지(Helena Norberg-Hodge)는 세계적인 생태환경운동가다.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산업적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 <오래된 미래-라다 크로부터 배운다>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에 관한 감독과의 워크숍도 진행된다.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춘천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최대의 마임축제 '마임의 한계를 넘어 몸·움직임·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순수 공연과 거리제 그리고 난장이 결합된 현장 속으로 도깨비 열차를 타고 떠난다. 춘천의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아바라장'을 비롯하여, 고슴도치섬 아름다운 자연의 품 안에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새벽을 질주하는 '미친금요일'은 축제와 예술에 미친 심지 깊은 마니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공간이 된다. 마임을 비롯한 현대공연예술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밤도깨비난장'에서는 '열반화(涅槃花)'를 비롯한 '인도 바울레슬란-호리불'의 공연 등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족, 연인과 함께 밤을 새며 열정을 맞출 수 있다.

인 몸짓으로 드러낸다. 살아있음에 대해 탐구하는 조은성의 <바라다보다>는 '끝없이 희망하고 있다'와 신념과 상념 속에 '끝없이 싸우고 있다'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부조리적 진행형을 이야기 한다. <스페이스달마> 우주천왕은 안의비실신의(眼醫神泄疾意)를 놀이의 즐거움으로 재탄생 한다. '마음시장'의 '지구물지켜줍'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재생산하거나 다시 제작되어 작품 전시까지 이루어지는 재활용품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펼친다. 이러한 활동은 춘천마임축제는 만들고 소모하는 축제가 아니라 다시 활용하고 되살리는 축제라는 것을 일깨우는 작업이다. 자연과 축제가 하나가 되어 자연 속의 축제, 축제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물과 안개의 축복을 받은 자연의 도시, 춘천, 춘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일탈의 Green Festival을 꿈꾼다. (www.2008.mimefestival.com) 가연숙 기자 onmlower@daum.net

'문명의 저편' 색선에서 만나는 바툼수 바이타르(Batmuh Suhbaatar) 감독의 독일 영화 <날개(Uguur)>는 행글라이더로 평원을 나는 꿈을 꾸는 11살 몽골 소년 부마의 이야기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 절의 노스님에게 맡겨지면서 행자 생활을 하게 된 부마의 성장기를 그린다. 책으로 잘 알려진 <오래된 미래>를 '문명의 저편' 색선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난다.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라다크는 히말라야 서쪽의 아름다운 사막 고원이다. 비록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영화경선을 필두로 세계 71개국에서 출품된 721편의 환경영화와 만난다. 친환경적인 영화제 운영을 통해 CO2 배출 없는 영화제를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한 환경 이슈인 기후변화와 허베이스파리트로 유류 유출사고에 의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과 기업 경영의 자세를 되새기게 하는 태안 관련 특별전도 함께 한다. (www.gffis.org)

미움의 집에서 공연되는 유진규네 몸짓의 <빈손>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흘러가고 있는 세계를 현대적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③ 곰피두부말이튀김

곰피, 미역, 다시마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쌀 140g의 산도를 중화시키는데 2.2g의 미역이면 충분하다. 고기나 생선 또는 달걀 등의 산성식품을 먹을 때 산도를 중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미역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식품영양학을 알지 못했으나 훌륭한 식습관을 남겨 주었다. 식품 중에 들어 있는 칼슘은 함께 존재하는 인산과의 비율이 중요하다. 인산에 비해 칼슘의 양이 더 많아야 좋은 것이다. 곡류나 육류에는 인산이 훨씬 더 많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된다. 생미역 100g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열량은 9kcal에 불과하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 하는 비만인에게 해조류가 만족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매우 적어서 식이요법에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 이렇게 훌륭한 식품인 미역을 두부와 함께 즐기게 이용해 온 것이 사찰음식이다. 두부에 해조류를 곁들여 먹는 것이야말로 궁합이 가장 잘 맞는 배합임을 입증한 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패스트푸드와 육류소비가 급속히 늘면서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어 변비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식을 위주로

### 해조류 니코틴 무독화시키는 성분 풍부 두부와 해조류는 궁합이 잘 맞는 식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호르몬은 지방대사에 필수적인 구실을 한다. 군더더기 피하지방을 분해시켜 날씬해지게 하는 호르몬이며 근육운동을 날렵하게 하는 작용도 한다. 해조류에 들어 있는 특수성분 라미나린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미역을 잘 먹으면 사람에게 혈압 높은 사람이 적다는 한 식사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변비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또한 미역을 먹으면 폐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해조류 중에는 니코틴의 유독성분을 무독화(解毒)시킬 수 있는 메티오닌 성분이 매우 풍부하다. 이들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과 톳이 150mg%가 가장 높다.

곰피두부말이튀김 재료: 곰피, 두부, 밀가루, 전분, 소금, 식용유, 간장, 식초

만드는 법

- ①곰피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마른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 ②두부는 얇게 부쳐서 체반에 올려둔다.
- ③밀가루와 전분을 반반 섞어서 얼음물에 튀김옷을 반죽해둔다.
- ④곰피를 바닥에 퍼 두부부침을 그 위에 놓고 돌돌 말아서 꽃이로 풀어지지 않게 고정한다.
- ⑤기름을 120도 정도 열을 올려서 곰피말이에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다음 먹기 좋게 썬다.
- ⑥초간장에 찍어 먹도록 하는데, 풀기함과 고소한 두부 맛이 어울려 환상적이다.

### 교스케 지나이 회화展

자신의 친필을 모티브로 일본회화 양식 위에 불교 사상을 신비로운 탐미주의로 자신만의 미감으로 표현하는 화가 교스케지나이(菅内克助)의 전시가 6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갈라에서 진행된다. 1948년 일본에서 태어난 교스케지나이는 올해로 환갑을 맞는다. 일본과 프랑스에서의 꾸준한 개인전을 통해 널리 알려진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화가이다. 화가의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의 작품을 모은 개관기념 기획 전시이다. 연꽃·모란·벚꽃·대나무 등 자연 대상물을 소나무와 함께 재배치하여 명상적이면서도 몽환적인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일본한지 위에 아크릴 칼라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그 위에 금박(金箔)·은박(銀箔)을 활용한다. 일본불교와 화가의 경험이 그려내는 심오한 세계와 만난다. (02)725-4250 가연숙 기자

### 渲染의 運用으로 자연 담는다

선명 '오산 홍성모'展 5월 29일 까지

"한국적 정체성과 서정성의 회화적 구현에 주목합니다. 담백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문인회화의 수묵산수화를 화폭에 담고자 합니다." 오산 홍성모(동국대 예술대학 한국화 강사) 화가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우림에서 전시를 연다. "본래의 색과 형태를 담고자 현장을 느끼며 사생하기를 즐깁니다. 중봉(中鋒)에 의해 필법을 조율하면, 옆게 퍼지는 먹과 조화를 이루지요(渲染의운용)." 사람과 어울려진 고목의 자연 풍경을 담은 화가의 호는 깨우칠 '오(悟)에 뫼(山)'로 '산(山)'. 1993년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 개인전이다. 그림 <도술암 이야기> 앞에 선 화가는 당시를 회상하며 "산사의 가을빛은 고창 선운사가 절경입니다. 상사화가 핀 꽃길을 따라 걸어가는 기분이란 도술암이 따로 없지요." 한국 전통 수묵산수화 세계에 내재된 문인적 정서와 현대수묵화의 조화 가 답키 유려함과 만날 수 있는 전시이다. (02)733-3738 가연숙 기자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계세 라마 큰스님 사리

아난존자 사리

목련존자 사리

말리례배 사리

석가모니부처님 열사리

초대 까르마빠 사리

광친스님 사리

라마 풍기빠 사리

성철 큰스님 사리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서울 불자를 위한

## 부처님 진신사리

### 서울(상원사) 친견 특별 대법회

2008년 5월 23일 ~ 5월 25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장소 |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31-1 상원사

주최 |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주관 | 한국불교 태고종 대림2동 상원사

문의 | 상원사 총무소 TEL. 02)833-0374~5

후원 | 한국불교 태고종,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신문사

상원사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6번 출구 도보 10분거리

안내 |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 10대 제자를 비롯한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의 성철 큰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들의 사리 등 총 39위(位)의 사리 3,000여과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